

# 워킹 푸어의 개념 및 규모, 현실태

---

2010.7.16 | 김수현\_새사연 연구원 | sida7@saesayon.org

---

## 목 차

1. 들어가는 글
2. 워킹 푸어의 개념 및 규모
3. 워킹 푸어의 특성 및 현실태
4. 워킹 푸어의 발생과 증가 배경
5. 글을 마치며



---

<http://saesayon.org>

## 요약

한국의 빈곤 양상이 변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와 정부는 빈곤 문제를 장애인이나 노인, 아동, 여성가장 등 전통적인 빈곤층 중심으로 다루어 왔다. 하지만 최근 전통적인 빈곤 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편, 새로운 빈곤계층이 확산되고 있다. 열심히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워킹 푸어(working poor)가 바로 그들이다.

워킹 푸어의 문제점은 취업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사실 그 자체이다. 고령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일자리를 가지지 못해서 빈곤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워킹 푸어의 현실이다. 비정규직과 영세·독립자영업자 등과 같은 워킹 푸어에게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실업과 고용불안, 높은 가계부채와 소비에 있어서의 상대적 박탈감을 겪고 있으며, 내일에 대한 희망마저 가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워킹 푸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사회보험이나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고용지원서비스의 도움도 실질적으로 받기 힘들다. 주거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미미하며, 자녀 교육에 대한 지원 역시 충분하지 않다. 경제는 회복되고 있지만 일을 해도 빈곤은 계속되는, 하지만 정부의 제도적 지원은 없는 워킹 푸어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 글은 한국의 워킹 푸어, 근로빈곤의 현실태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인과 해결책을 분석하는데 앞서, 워킹 푸어의 정의 및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워킹 푸어 규모와 특성, 현실태에 대해 고찰한다. 이와 함께 워킹 푸어 관련 제도적·정책적 방안을 도출하는데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워킹 푸어의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에 대해서 역시 규모, 특성, 현실태를 살펴본다. 분석에는 통계청의 2010년 1분기 가구동향조사 원자료(가중치 포함)와 2010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가중치 포함)를 이용한다.

워킹 푸어의 사전적 의미는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생활보호 수준의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

라의 워킹 푸어, 근로빈곤의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좀더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한데, 이 글에서는 OECD가 국제비교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을 따른다. 가구원 수를 고려한 균등화 가구소득에서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빈곤가구로 보는 상대빈곤 개념을 사용하여 빈곤가구를 정의하고, 빈곤가구 중 15세 이상 64세 이하인 취업상태에 있는 가구원이 있을 경우 그 가구와 그 가구에 속한 가구원을 워킹 푸어로 규정한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통계청의 2010년 1분기 가구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 한국의 워킹 푸어 규모를 직접 구해보면, 2010년 1분기 현재 전체 가구의 29.44%가 빈곤상태에 있으며, 12.55%가 워킹 푸어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빈곤가구 중에서는 42.63%가 워킹 푸어인 것이다. 워킹 푸어 가구의 구성원을 워킹 푸어로 보고 인구기준으로 보면, 2010년 1분기 현재 4,547만명의 인구 중 452만명, 전체 인구의 9.93%가 워킹 푸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도쿠라 다카시와 현대경제연구원은 워킹 푸어를 열심히 일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노동자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워킹 푸어의 정확한 개념을 만족하지 않지만 열심히 일해도 빈곤할 수 있는(poorable) 일자리를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방식을 이용해, 통계청의 2010년 3월 경제활동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현재 3인 가구 최저생계비 1,110,919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29.4%의 노동자가 빈곤상태에 있을 경우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빈곤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워킹 푸어 가구의 특성 및 현실태에 대해 분석한 것은 다음과 같다. 워킹 푸어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26명이고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가 많았으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워킹 푸어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워킹 푸어 가구의 평균 소득 및 가처분 소득은 워킹 푸어가 아닌 가구의 절반에도 훨씬 못미치며, 이와 같이 소득이 낮은 워킹 푸어 가구의 경우 소비지출이 가처분 소득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다. 그리고 소비지출에 있어 교육비와 보건비 지출 수준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었다. 또한 워킹 푸어 가구의 입주형태는 자기집의 비중이 작았고, 보증부 월세의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워킹 푸어 가구의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주거비 상승에 가계지출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가리킨다.

이와 함께 3인가구 최저생계비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 즉 워킹 푸어로 전락

할 가능성이 높은 노동자들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이들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구성과 비교했을 때 임시일용직과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았다. 그리고 여성의 비중이 더 컸고, 상대적으로 학력수준이 낮았으며, 연령대를 구분해 각 연령대의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았을 때 전체 임금근로자에 비해 청년층이나 고령자층의 비중이 더 컸다. 또한 이와 같이 낮은 임금을 받음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직장에서 제공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워킹 푸어 발생과 증가의 원인 및 배경으로는 (1) 비정규직의 증가와 비정규직 임금저하, (2) 실직의 증가, (3) 소득의 양극화, (4) 노동시장에서 존재하는 차별, (5) 해외 투자 증대 등이 주로 이야기 되고 있다.

“일자리의 제공이 최선의 복지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노동의 대가인 임금으로 빈곤을 벗어날 수 있고, 어느 수준 이상의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워킹 푸어는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고, 최저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은 어떤 미래를 생각할 수 있을까? 카도쿠라 다카시는 “현재 당신이 워킹 푸어에 해당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중요치 않다. 지금 생각해야 할 것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찾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일을 통해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꿈꿀 수 있는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워킹 푸어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현실에 대한 분석인 이 글과 같은 연구들을 기반으로 워킹 푸어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더욱 심층적이고, 다양한 층위에서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문

## 1. 들어가는 글

한국의 빈곤 양상이 변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와 정부는 빈곤 문제를 장애인이나 노인, 아동, 여성가장 등 전통적인 빈곤층 중심으로 다루어 왔다. 하지만 최근 전통적인 빈곤 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편, 새로운 빈곤계층이 확산되고 있다. 열심히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워킹 푸어(working poor)가 바로 그들이다.

1990년대 미국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이 용어는 전 지구적으로 신자유주의가 확대되면서 진행된 소득양극화와 함께 2000년 이후 일본을 비롯 전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워킹 푸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소는 2010년 국내 10대 트렌드 중 하나로 워킹 푸어의 증가를 꼽았는데<sup>1)</sup>, 보고서에서 국내 경기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공공부문 역시 임시직이나 비정규직 고용을 확대함에 따라 저소득 근로빈곤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워킹 푸어의 문제점은 취업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사실 그 자체이다. 고령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일자리를 가지지 못해서 빈곤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 하는 것이 워킹 푸어의 현실이다. 2006년 NHK는 일본의 워킹 푸어에 대한 특집방송을 통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새로운 빈곤층이 일본사회에 뿌리내리고 있음을 일본 사회에 알렸다<sup>2)</sup>. 게을러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 불평하지 않고 일한 사람들이 생활보호 수준 이하의 생활 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은 그것을 취재를 하던 기자들에게도 의문과 분노를 가지게 했다.

2010년 한국의 현 상황은 당시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성장률 증대와 고용 회복 등의 경기지표는 경제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가리키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 특히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워킹 푸어로 전락한

1) 현대경제연구소 (2010a) 2010년 국내 10대 트렌드.

2) NHK 스페셜 취재팀 (2010) 워킹푸어 : 왜 일할수록 가난해지는가

많은 비정규직과 영세·독립자영업자들에게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실업과 고용불안, 높은 가계부채와 소비에 있어서의 상대적 박탈감을 겪고 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내일에 대한 희망의 상실”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sup>3)</sup>.

이와 같은 워킹 푸어 문제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7월 31일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만성적인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sup>4)</sup>. 물론 노동을 통해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워킹 푸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일 것이다. 하지만 그 후 1년 가까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경제상황이 회복되었다는 정부의 발표 속에서도, 안정적인 일자리의 증가를 통해 워킹 푸어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다. 대규모 토건사업이나 희망근로 등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노력은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 만성적인 가난을 겪는 사람을 가난에서 탈출시켰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생활비 이하의 저임금 일자리는 오히려 일을 하지만 여전히 빈곤한 상태에 있는 워킹 푸어를 더욱 증가시켰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워킹 푸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사회보험이나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진입을 돕는 고용지원서비스의 도움도 실질적으로 받기 힘들다. 삶의 기본적인 요소인 주거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미미하며, 이들의 소득을 고려한 자녀 교육에 대한 지원 역시 충분하지 않다. 경제는 회복되고 있지만 일을 해도 빈곤은 계속되는, 하지만 정부의 제도적 지원은 없는 워킹 푸어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새로운 빈곤의 한 양상이라 볼 수 있는 한국의 워킹 푸어, 근로빈곤의 현실태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인과 해결책을 자세히 분석하는데 앞서, 먼저 워킹 푸어의 정의 및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워킹 푸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그들의 특성 및 현실태에 대해 고찰한다. 이를 위해 통계청 2010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자료 원자료(가중치 포함)를 활용한다. 이와 함께 이 글에서는 워킹 푸어 관련 제도적·정책적 방안을 도출하는데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워킹 푸어의 가능성이 높은 일자

3) 노대명 (2005) 양극화시기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당면과제, 보건복지포럼.

4) YTN, 7월 31일.

리에 대해서 역시 규모, 특성, 현실태를 살펴보면, 통계청의 2010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가중치 포함)를 활용해 이를 분석하고 있다.

## 2. 워킹 푸어의 개념 및 규모

카도쿠라 다카시(2008)는 자신의 저서에서 “워킹 푸어란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생활보호 수준의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킨다”<sup>5)</sup>고 정의하고 있다. 워킹 푸어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이와 같이 간단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의 워킹 푸어, 근로빈곤의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좀더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한데, 이는 학술적으로 상당히 논쟁적이고 복잡하다.

워킹 푸어, 근로빈곤은 워킹(working)과 푸어(poor)가 합쳐진 말이다. 우선 푸어(poor), 빈곤의 경우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개념이 있다. 그리고 이 중 상대빈곤의 경우 가구원에 따른 가구 소득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으며, 빈곤 가구를 규정하는 빈곤선을 중위소득의 40%, 50%, 60% 중 어느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쟁적이다. 빈곤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실제 빈곤의 규모가 상당히 다르게 측정된다. 워킹(working), 노동의 경우에는 취업상태에 있는(working)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취업할 수 있는(workable)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으며, 워킹 푸어의 직접적인 대상을 빈곤가구에 있는 취업자(혹은 취업가능 자)만으로 국한할 것인가, 아니면 그 가구에 속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워킹 푸어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등이 있다<sup>6)</sup>.

이 글에서는 우선 OECD가 국제비교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빈곤가구로 설정하는, 상대빈곤 개념을 사용하여 빈곤을 정의하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워킹 푸어를 규정해 그 규모를 측정한다. 이에 따르면, 먼저 상대빈곤의 개념을 통해 빈곤을 정의하는데 가구원수의 차이를 고려해 산출한 균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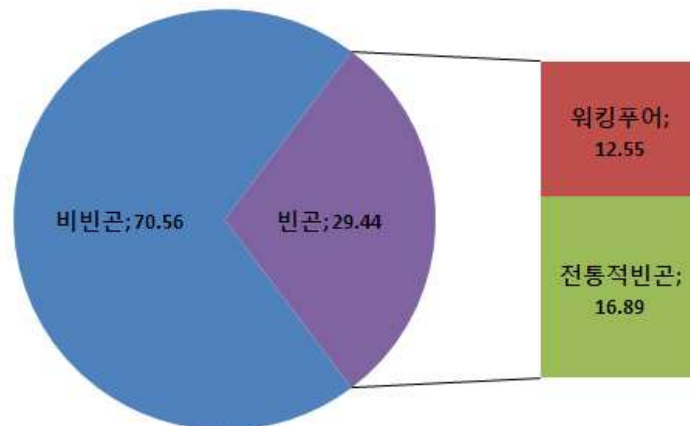
5) 카도쿠라 다카시 (2008) 워킹 푸어.

6)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대명·최승아 (2004) 한국 근로빈곤층의 소득·고용실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 (2005) 양극화시기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당면과제, 보건복지포럼”, “이병희·반정호 (2009) 근로빈곤층의 실태와 동향, 동향과 전망 75호”, “이태진·이상은·홍경준·김선희 (2004) 근로빈곤층의 실태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진호·황덕순·김재호·이병희·박찬임 (2005) 한국의 근로빈곤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등의 기존 학술연구들을 참조할 것.

가구소득( $\frac{\text{가구소득}}{\sqrt{\text{가구원수}}}$ )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를 빈곤가구로 정의한다. 이때 가구소득은 OECD가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처분가능소득(= 가구소득 - 비소비지출(세금, 이자 등))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빈곤가구 중 15세 이상 64세 이하인 취업상태에 있는 가구원이 있을 경우 그 가구와 그 가구에 속한 가구원을 워킹 푸어로 규정한다.

위 개념을 바탕으로 통계청의 2010년 1분기 가구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 한국의 워킹 푸어 규모를 직접 구해보면, 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2010년 1분기 현재 전체 가구의 29.44%가 빈곤 상태에 있으며, 12.55%가 워킹 푸어, 근로빈곤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빈곤가구 중에서는 42.63%가 워킹 푸어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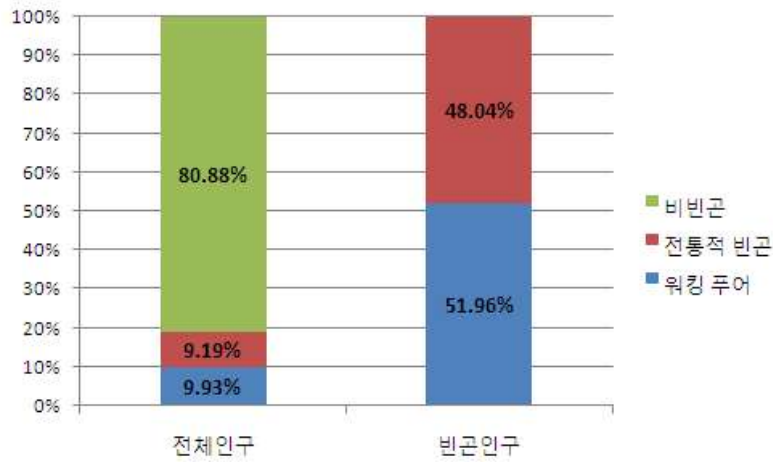
[그림 1] 2010년 1분기 국내 워킹 푸어의 규모(가구기준)



[그림 2]는 워킹 푸어 가구에 속한 구성원들을 워킹 푸어로 보고 인구기준으로 2010년 1분기 국내 워킹 푸어의 규모를 산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4,547만명의 인구 중 452만명, 전체 인구의 9.93%가 워킹 푸어로 나타났다. 인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구 기준으로 보았을 때와 달리 빈곤계층 중 전통적 빈곤인 사람들 (48.04%)보다 워킹 푸어(51.96%)의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통적 빈곤의 경우 아동, 여성, 고령자가 가구주인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체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가 2.85명이고, 워킹 푸어 가구의 경우 그보다 적은 2.26명이다. 하지만 전통적 빈곤 가구의 경우 1.55명으로 워킹 푸어 가구보다 더 적었다.



[그림 2] 2010년 1분기 국내 워킹 푸어의 규모(인구기준)



워킹 푸어를 정의함에 있어 빈곤 가구로부터 접근하는 방법과 함께 열심히 일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노동자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 카도쿠라 다카시(2008)와 현대경제연구원(2010)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워킹 푸어의 규모를 분석하고 있는데, 이들 분석에서 일본의 경우 연간 소득이 200만엔 미만인 임금근로자를 워킹 푸어로 규정하였고, 국내의 경우 현대경제연구원은 2008년 3인기준 최저생계비인 102만 6,602원 이하를 받고 있는 임금근로자의 비율을 계산해 2008년 워킹 푸어의 규모를 계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분석에 대해 노대명(2005)은 “근로빈곤층을 정의함에 있어 저임금 노동자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이러한 방식은 소득이 높은 가구에 속하면서 낮은 임금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을 워킹 푸어로 보는 등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의 특성을 기준으로 볼 때, 이와 같은 접근방법은 열심히 일해도 빈곤할 수 있는(poorable) 일자리를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와 같은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정확한 워킹 푸어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빈곤한 가구에 속하는 개인이 이와 같은 일자리에 종사할 경우 그들은 워킹 푸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즉, 이들의 일자리 특성 분석을 통해 워킹 푸어 발생과 증가의 배경 및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고찰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카도쿠라 다카시(2008)와 현대경제연구원(2010)의 분석방법과 동일하게, 통계청의 2010년 3월 경제활동조사 원자료를 통해 2010년 3월 현재 3인 가구 최저생계비 1,110,919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1,661만 7

천명의 임금근로자 중 489만명의 노동자가 이에 속한다. 즉, 전체 임금근로자 중 29.4%의 노동자는 빈곤상태에 있을 경우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스스로는 그 빈곤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노동자인 것이다.

이와 같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실제 워킹 푸어인 인구의 비중보다 높은 것은 분석 대상에서 비임금근로자가 제외되었고, 이들이 현재 빈곤이 아닌 가구에 속한 노동자이기 때문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두 사람 모두 3인 가구 최저생계비 미만의 낮은 임금을 받더라도 워킹 푸어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역시 한 사람이 출산이나 육아, 질병 등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워킹 푸어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즉, 이들은 본인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워킹 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 3. 워킹 푸어의 특성 및 현실태

앞서 워킹 푸어 가구와 워킹 푸어의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규모를 살펴보았다. 워킹 푸어의 규모는 가구의 12.55%, 전체 인구의 9.93%로 나타났고, 워킹 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3인가구 최저생계비 미만의 월급을 받는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29.4%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는 이들이 가진 특성과 이들의 현실태에 대해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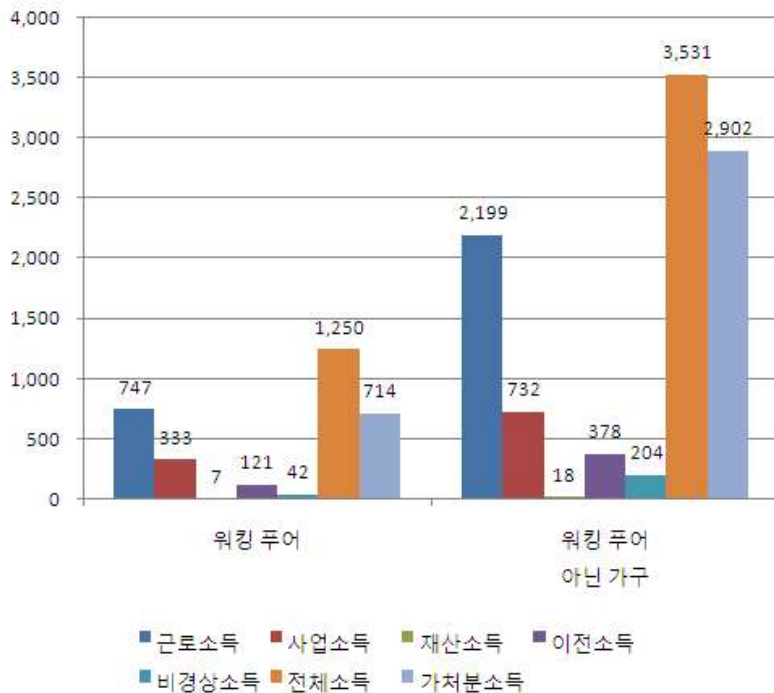
#### ■ 워킹 푸어 가구의 특성 및 실태

우선 간략하게 워킹 푸어 가구의 구성을 살펴보면, 우선 평균 가구원수가 2.2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 2.85명보다는 적고, 전통적 빈곤 가구의 가구원수 1.55명보다는 많은 수치이다. 워킹 푸어 가구의 가구주는 여성의 비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워킹 푸어가 아닌 가구의 경우 74.6%의 가구에서 남성이 가구주이고 23.4%의 가구에서만 여성이 가구주인 반면, 워킹 푸어 가구에서는 43.3%의 가구에서 여성이 가구주였다. 다음으로 워킹 푸어 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12.8%로 워킹 푸어가 아닌 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비중 29.8%보다 낮았다. 맞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역시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맞벌이 가구의 경우(5.8%)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15.2%)보다 워킹 푸어의 비중이 낮았다. 이는 가구 내 2명 이상의 취업자가 있을 경우 빈곤에서 벗어날 확률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워킹 푸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5만원,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가처분 소득은 월평균 71만원으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이는 워킹 푸어가 아닌 가구의 월평균 소득 353만원, 월평균 가처분 소득 290만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소득의 내역을 살펴보면 워킹 푸어인 가구와 그렇지 아닌 가구 모두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으며, 이전소득과 비경상소득의 경우 3배 이상 워킹 푸어가 아닌 가구가 워킹 푸어 가구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소득의 구성(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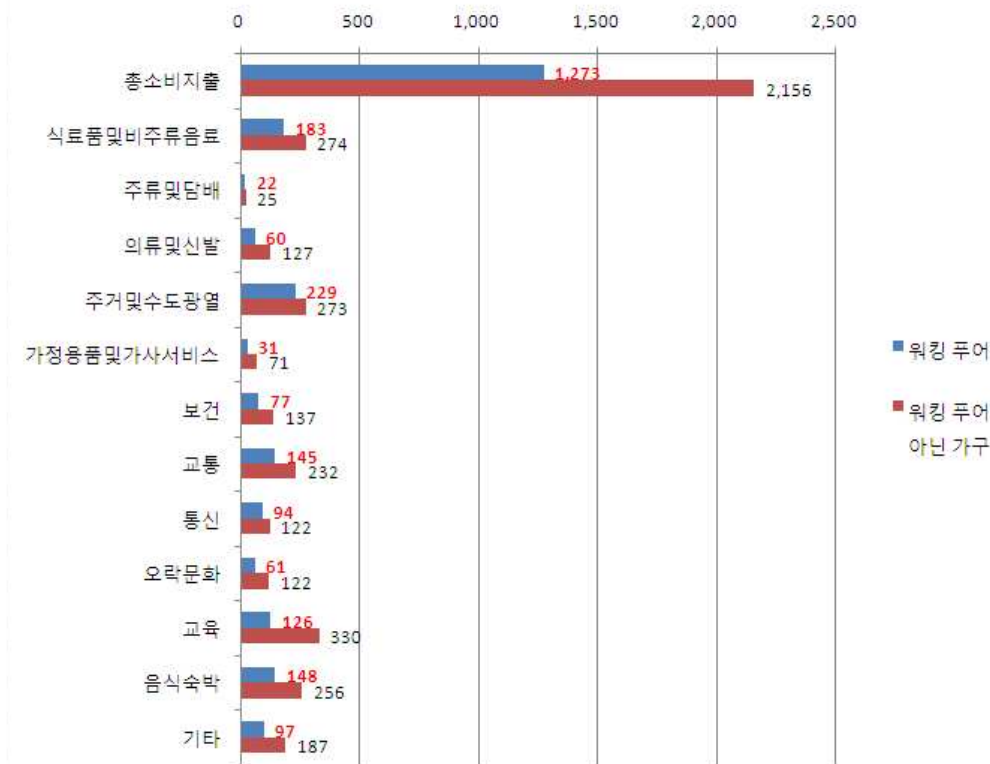


소비지출의 경우 워킹 푸어 가구의 경우 월평균 127만원, 워킹 푸어가 아닌 가구의 경우 216만원으로 드러났다([그림 4] 참조). 앞서 살펴본 소득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워킹 푸어 가구의 경우 소비지출이 전체 소득보다 2만 3천원 더 많으며, 실제 소비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 71만 4천원보다는 무려 55만 9천원이나 많았다. 가처분 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더 큰 현실은 워킹 푸어 가구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가처분 소득보다 훨씬 더 많은 소비지출을 하고 있는 이들 가구의 문제는 소비지출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소득이 적기 때문이다. 실제 워킹 푸어 가구의 지출은 워킹 푸어가 아닌 가구의 60% 수준도 안되는

수준이다. 가처분 소득보다 소비가 더 많은 이러한 현실은 워킹 푸어 가구가 현재의 빈곤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인 저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오히려 앞으로 갈아야 할 부채만 증가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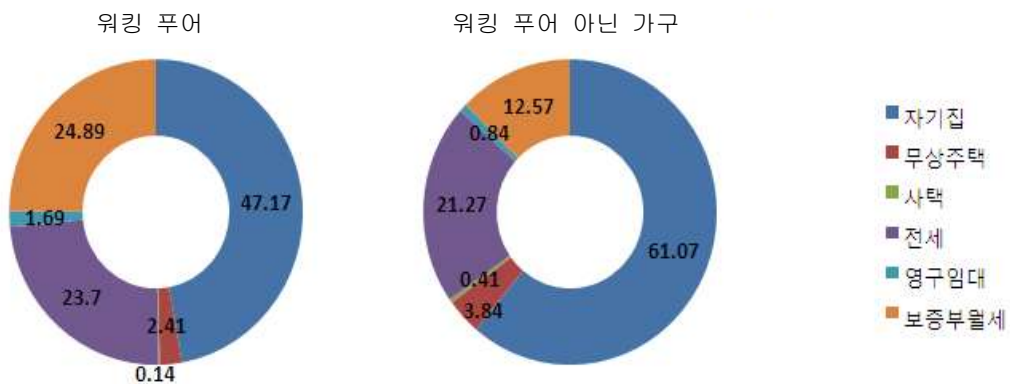
특히, 소비지출에서 워킹 푸어 가구와 워킹 푸어가 아닌 가구의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항목은 교육이다. 워킹 푸어 가구의 월평균 교육비 12만 6천원은 워킹 푸어가 아닌 가구 33만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이런 교육비 지출의 격차는 학업 자녀 유무에 따른 차이도 존재하지만, 소득격차에 따라 워킹 푸어 가구의 경우 교육비에 많은 돈을 지출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소득격차에 기인한 교육서비스 수급의 차이는 향후 학력 격차로 발현되어 빈곤의 대물림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보건비 지출 역시 큰 차이가 나는데, 이 역시 가족구성원 수에 따른 차이와 소득격차에 의한 차이가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프지 않아서, 질병을 앓는 사람이 없어서 보건비 지출이 적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 이겠지만,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보건비 지출이 적은 것이라면, 워킹 푸어 가구와 워킹 푸어가 아닌 가구 사이 건강수준에 있어서도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4] 소비지출 구성(단위 : 천원)



[그림 5]는 가구의 입주형태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워킹 푸어 가구와 워킹 푸어가 아닌 가구 사이 가장 큰 차이가 있는 항목은 자기집과 보증부 월세였다. 워킹 푸어가 아닌 가구의 경우 입주형태가 자기집인 비율이 61.07%로 47.17%인 워킹 푸어보다 13.9%가량 높았다. 반면 보증부월세의 경우 워킹 푸어 가구가 24.89%로 12.57%인 워킹 푸어가 아닌 가구보다 12.32% 높았다. 이는 워킹 푸어의 경우 주거환경에 있어서도 워킹 푸어가 아닌 가구보다 열악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또한 주거비 상승에 의해 가계지출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5] 입주 형태



요약하면, 워킹 푸어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26명이고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가 많았으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워킹 푸어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워킹 푸어 가구의 평균 소득 및 가처분 소득은 워킹 푸어가 아닌 가구의 절반에도 훨씬 못미치며, 이와 같이 소득이 낮은 워킹 푸어 가구의 경우 소비지출이 가처분 소득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다. 그리고 소비지출에 있어 교육비와 보건비 지출 수준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었다. 또한 워킹 푸어가 아닌 가구와 비교할 때 워킹 푸어 가구의 입주형태는 자기집의 비중이 작았고, 보증부 월세의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워킹 푸어 가구의 경우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주거비 상승에 가계 지출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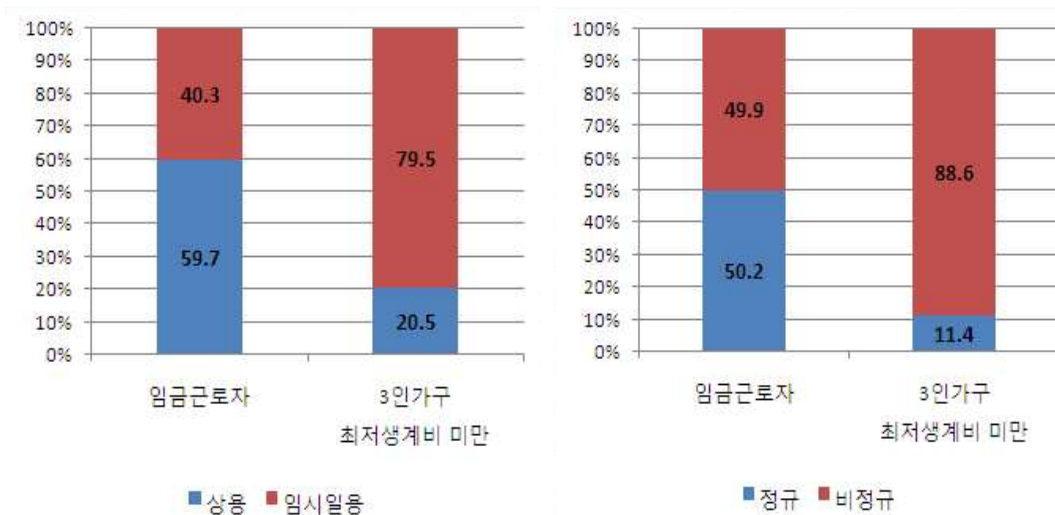
### ■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노동자들

워킹 푸어인 개인은 개념 상 빈곤한 가구에 속한 노동자 혹은 그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가구원을 의미한다. 하지만 낮은 임금으로 인해, 빈곤상태에 있을 경우 일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노동자들을 살펴보는 것 또한 정책적 방안을 고찰하는데 있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실제 워킹 푸어에 대한 정책을 만드는데 노동을 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이들 일자리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2010년 3월 현재 임금근로자 중 3인가구 최저생계비(1,110,919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은 29.4%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들을 종사상 지위로 구분했을 때, 주로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높으며, 정규·비정규로 구분했을 때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 참조). 3인가구 최저생계비 미만 임금을 받는 사람 중 상용직의 비중이 20.5%이고, 임시일용직이 79.5%였다. 이는 저임금을 받는 임시일용직에 종사하는 노동자일수록 워킹 푸어의 가능성이 높음을 가리킨다. 또한 정규·비정규로 구분했을 때 비정규 노동자(88.6%)의 비중이 정규직(11.4%)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p>7)</sup>. 이는 비정규직의 경우 임시일용직과 마찬가지로 낮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이들에 종사하는 노동자일수록 워킹 푸어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림 6] 종사상 지위 및 정규직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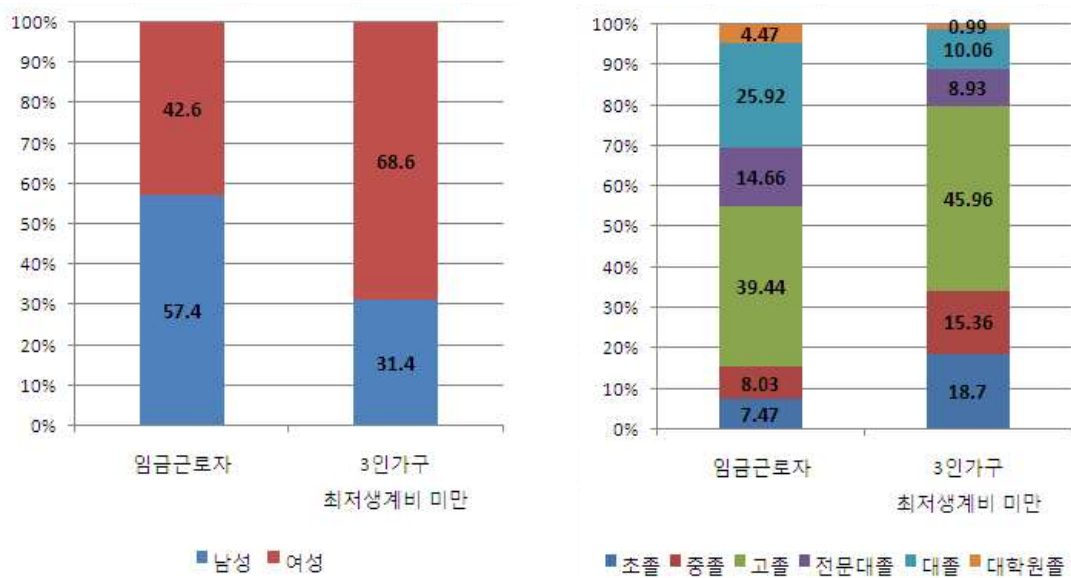


성별로 보면 여성노동자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수준으로 구분했을 때 고졸이하의 비중이 높았다([그림 7] 참조). 전체 임금근로자 중 여성의 비율은 42.6%인 반면, 3인가구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 중 여성의 비율은 68.9%나 되었다. 가구의 주된 임금소득원인 가장만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가장

7) 이는 김유선(2009)의 비정규 개념을 사용했을 때의 결과이다. 통계청의 비정규 개념을 사용할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중은 각각 39.35%, 60.65%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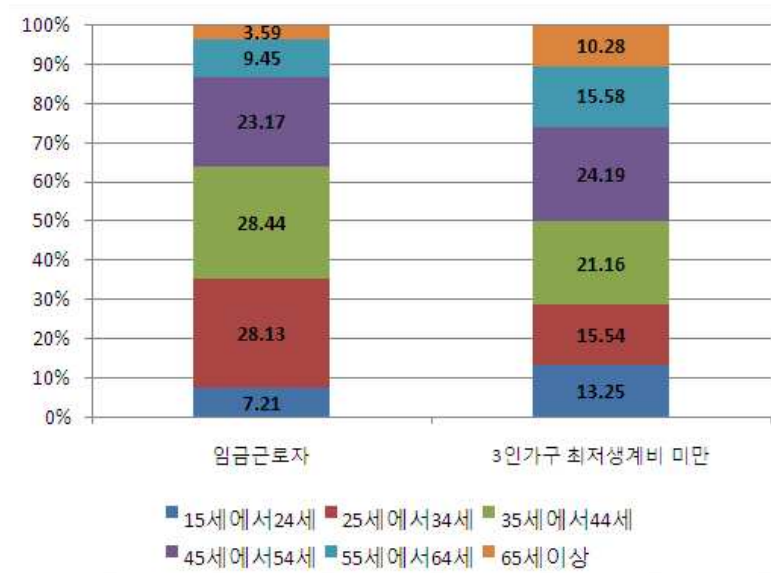
인 임금노동자 중 여성의 비율은 19.2%였고, 3인가구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가장 인 노동자 중 여성의 비율은 47.8%나 되었다. 이는 여성 노동자의 경우 워킹 푸어의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가리킨다. 학력수준에 있어서는 3인가구 최저생계비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임금근로자 중 고졸이하의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54.9%인데 반해, 3인가구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 중에서는 80.0%가 고졸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성별, 교육수준별 구성



연령대별로 보면, 3인가구 최저생계비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청년층과 고령자 층이 많았다(그림 8] 참조). 이는 이들 연령대의 노동자들이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청년층의 경우 편의점 등과 같은 판매서비스업 아르바이트나 제조업, 건설업에서의 단기 임시직 등이 주요 일자리일 것으로 생각되고, 55세 이상 고령자층의 경우 퇴직 후 아파트 경비나 택시나 버스 운전 등 고령자가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을 것이다. 또한 이들은 일하는 목적 역시 다를 수 있다. 청년층이나 고령자층 모두 더 많은 소비가 목적일 수 있고, 생계비가 목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워킹 푸어와 관련된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데 있어 연령대별 특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8] 연령대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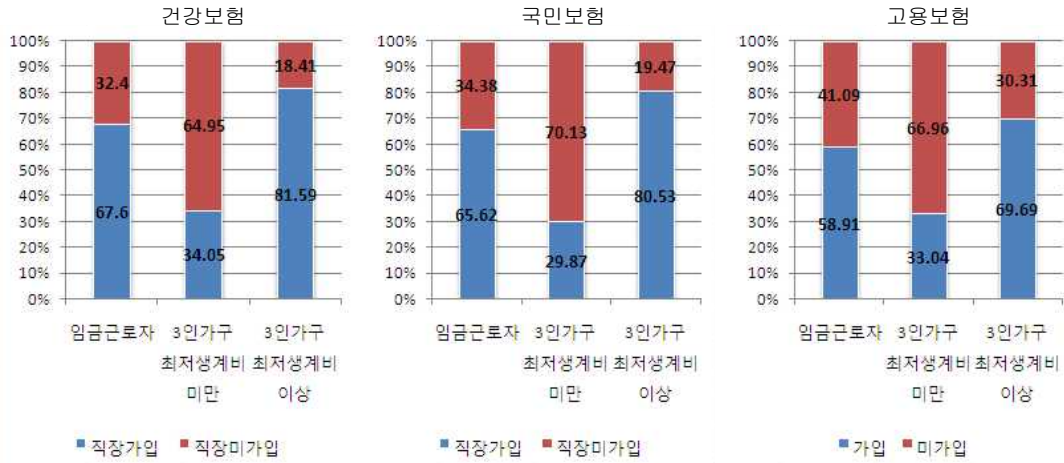
이와 같은 특성과 함께 3인가구 최저생계비 미만의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저임금을 감수하고 있음에도 사회보장으로부터는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는 건강보험, 국민보험, 고용보험을 제공받는 노동자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3인가구 최저생계비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34.05%가 직장으로부터 제공받는 반면, 그 이상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81.59%가 직장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다. 국민보험 역시 3인가구 최저생계비 미만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29.87%만이 직장으로부터 제공받는 반면, 그 이상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80.85%가 직장으로부터 제공을 받는다. 고용보험 역시 비슷한 양상이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3인가구 최저생계비 미만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구성에서 임시일용직, 비정규직의 비중이 큰 것과 관계가 있다. 이전의 분석에서<sup>8)</sup>, 비정규직의 경우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낮은 임금을 받는 계층이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계층에서 누리는 사회보장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현실은 향후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노대명(2005)은 이와 같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공적부조의 사각지대에 머무는 빈곤층의 경우 빈곤층의 대물림/재생산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그림 1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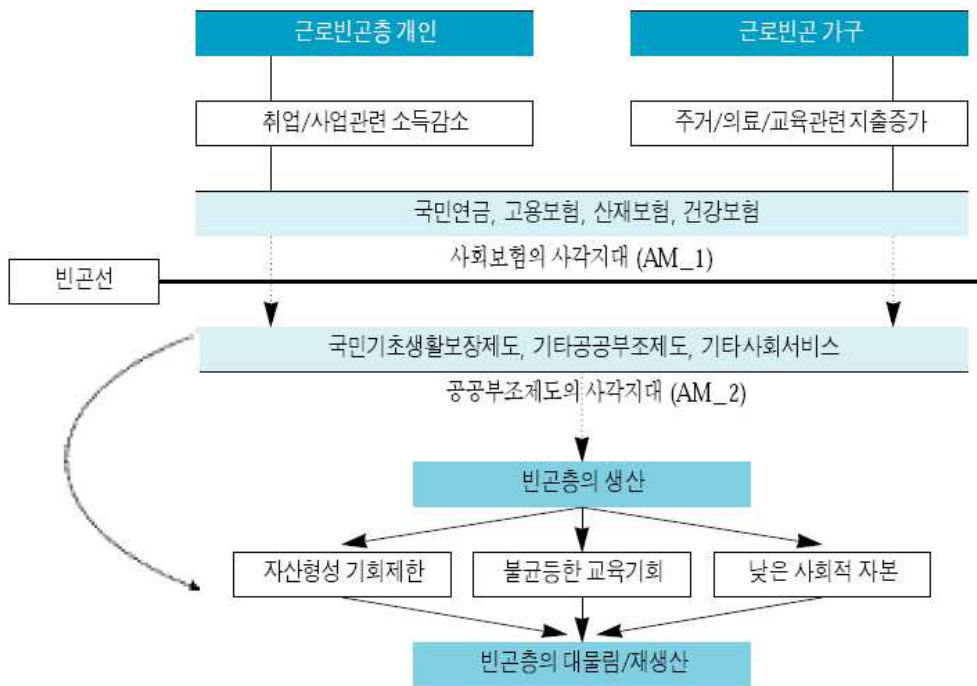
8) “김수현 (2010) 임금 및 사회보험 적용에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새사연 보고서“ 참조



[그림 9] 건강보험, 국민보험, 고용보험 제공



[그림 10] 워킹 푸어 발생과 사회보장체계



출처 : 노대명 (2005) 양극화시기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당면과제, 보건복지포럼.

여기서는 3인가구 최저생계비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 즉 워킹 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노동자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구성과 비교했을 때 임시일용직과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았다. 그리고 여성의 비중이 더 컸고, 상대적으로 학력수준이 낮았으며, 연령대를 구분해 각 연령대의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았을 때 전체 임금근로자에 비해 청년층이나 고령자층의 비중이 더

켰다. 또한 이와 같이 낮은 임금을 받음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직장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저임금을 감수함에도 사회보험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 4. 워킹 푸어의 발생과 증가 배경

전통적 빈곤의 개념과는 다른, 새로운 빈곤의 양상이라 할 수 있는 워킹 푸어의 발생과 증가 원인은 무엇일까? 근본적으로는 생산방식의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 사회양극화와 같은 주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 워킹 푸어의 발생 및 증가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많이 다루어지는 직접적인 배경, 원인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워킹 푸어 발생 및 증가의 첫 번째 원인은 비정규직의 증가와 비정규직 임금저하를 들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기업들은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구조조정을 통해 정규직을 감소시키고 비정규직 고용은 크게 증가시켰다. 정규직에 비해 일자리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고 낮은 임금을 감수해야 하는 비정규직의 증가는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증가시킨 것이다.

1997년 이후 몇 년간이 워킹 푸어의 증가가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른 결과라면 최근의 워킹 푸어는 비정규직의 임금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임금은 물가상승을 고려할 경우 실질적으로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더욱 커져 2010년 3월 현재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금융위기를 전후해 비정규 노동자 전체의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비정규 노동자의 이와 같은 임금 저하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을 워킹 푸어로 전락시켰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 원인은 실직의 증가이다. 금융위기 이후 고용율이 하락하였다. 이는 경제 위기에 따른 기업의 구조조정의 결과이다. 고용율 하락, 실직의 증가는 가구의 근로 수입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이로 인한 빈곤의 증대는 워킹 푸어를 증가시키는 요인일 것이다. 특히 가구의 주요 소득원인 가장의 실직은 다른 가구원이 일하고 있을 경우 워킹 푸어로의 전락으로 직결될 것이다. 또한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실직의 증가는 고령자층의 은퇴를 증가시킨다. 이 경우 다시 노동시장에 나서는 고령자는

이전보다 훨씬 적은 소득만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이와 같은 가구 소득의 감소 역시 워킹 푸어 증가의 한 요소로 생각된다.

세 번째 원인은 소득의 양극화이다. 지난 5월 18일 통계청의 “월소득수준별 가계수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 가운데 상위 10%(10분위) 가구의 올해 1분기 월평균 소득은 1,015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소득 하위 10%(1분위) 을 1분기 월평균 소득은 58만 원으로 나타났다. 둘 간의 엄청난 소득 격차가 존재하며 하위에 속하는 가구의 낮은 소득은 이들로 하여금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워킹 푸어로 전락도록 강요한다.

네 번째 원인은 노동시장에서 존재하는 차별이다. 앞서 3인가구 최저생계비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여성의 비중이, 연령별로는 청년층, 고령자층의 비중이 우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 청년층, 고령자층이 낮은 임금을 받기 때문인데, 이들의 저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존재하겠지만, 이들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의 존재 역시 기존의 연구에서 보면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여성, 청년층, 고령자층에 대한 노동시장의 차별로 인해 이들은 낮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에 종사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워킹 푸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이다.

다섯 번째 원인으로서는 해외 투자 증대를 들 수 있다. 해외 투자의 증대, 국내 고용의 해외 유출은 주로 일본의 워킹 푸어 증가의 원인으로 많이 이야기되어 왔다.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 해외시장 판로 개척 등의 이유로 해외투자를 증가시킴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고, 이는 결국 워킹 푸어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현대경제연구원, 2010). 최근 한국 역시 이러한 전철을 밟고 있다. 제조업과 같은 공산품의 경우 현지에 공장을 설립한 후 생산·판매하는 방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인건비 절감을 위해 중국인 등과 같은 해외고용을 늘리고 있다. 이와 같은 해외 투자의 증대, 국내 고용의 해외 유출은 국내의 일자리 감소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도 감소시킬 것이고, 이는 워킹 푸어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 5. 글을 마치며

이상에서 워킹 푸어의 개념을 알아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2010년 현재 워킹 푸어의

규모와 워킹 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의 규모, 그리고 그것 각각의 특성과 현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간략하게 우리나라에서의 워킹 푸어 발생과 증가의 원인 및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글의 주된 목적은 워킹 푸어에 대한 심층연구의 첫 번째 단계로서 우리나라의 워킹 푸어 현실에 대해 살펴보는데 있다. 그러므로 2010년 통계청의 원자료를 이용해 규모, 특성, 현실태에 대한 분석을 하였고, 나아가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워킹 푸어의 정확한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워킹 푸어의 현실에서 나아가 워킹 푸어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연구에서는 다양한 워킹 푸어 가구의 특성 및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일자리의 특성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워킹 푸어라는 하나의 용어로 묶이지만 실제 그 속에는 다양한 가구적, 인구적 구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이 워킹 푸어로 전락한 원인과 배경,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은 그에 따라 상이할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다양한 층위에서의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실에서 일을 해도 빈곤상태가 지속되는 워킹 푸어의 존재는 기존의 빈곤 해결책과는 다른 방법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연구 또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소비지출이 적은데도, 그들의 근로소득이나 가처분 소득보다는 훨씬 큰 현실을 감안하면 조속한 정부의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함께 이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이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향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자리 제공이 최선의 복지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노동의 대가인 임금으로 빈곤을 벗어날 수 있고 어느 수준 이상의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워킹 푸어의 존재는 이러한 가정이 옳지만은 않다는 것을 가리킨다.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최저 수준의 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어떤 미래를 생각할 수 있을까? 카도쿠라 다카시(2008)는 “현재 당신이 워킹 푸어에 해당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중요치 않다. 지금 생각해야 할 것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찾는 일”이라고 했다.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꿈꿀 수 있는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워킹 푸어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수현 (2010) 임금 및 사회보험 적용에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새사연 보고서.
- 김유선 (2009)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 149.
- 노대명 (2005) 양극화시기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당면과제, 보건복지포럼.
- 노대명·최승아 (2004) 한국 근로빈곤층의 소득·고용실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병희·반정호 (2009) 근로빈곤층의 실태와 동학, 동향과 전망 75호.
- 이태진·이상은·홍경준·김선희 (2004) 근로빈곤층의 실태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진호·황덕순·금재호·이병희·박찬임 (2005) 한국의 근로빈곤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카도쿠라 다카시 (2008) 워킹 푸어.
- 현대경제연구소 (2010) 사전적 워킹 푸어 대책 시급하다, 경제주평.
- 현대경제연구소 (2010a) 2010년 국내 10대 트렌드.
- NHK 스페셜 취재팀 (2010) 워킹푸어 : 왜 일할수록 가난해지는가?
- OECD (2009) OECD Employment Outlook 2009, OECD.